

“청소년특화공간 조성해야”

익산시의회 조남석·조은희 의원, “북부권 농촌지역 청소년 문화공간 없어”

익산시 북부권에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문화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조남석·조은희 의원(합영·황등·합라·웅포·성당·망성·용안·용동)은 지난 25일 익산시의회에서 집행부 청소년 관련시설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북부권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을 신속하게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조남석·조은희 의원은 이날 교육청소년과(과장 최영숙)와의 간담회에서 익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공간, 문화공간들은 주로 도심권에만 편중되어 있어 북부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청소년 관련 시설 8개 기관

(수련시설, 복지시설 등)은 현재 모두 시내권(어양동 신동 모현동 등)에 위치해 있는데 비해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시설 등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특화공간 설치에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했다.

두 의원은 익산시 소유의 공간들 중 한 곳을 청소년특화공간으로 만들어서 합영지역 구도심 재생뉴딜 사업, 농촌협약사업 등과 사업을 연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지역 국회의원 지원 요청을 통해 청소년특화공간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남석 의원은 지난 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소외된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마련의 필요성

및 청소년 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 편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익산시는 농촌지역에 단 1개소라도 제대로 된 청소년 문화공간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5천여 명이 넘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소년과는 “2021년 시행된 ‘익산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또한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이다.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0년 노하우로 국화 작품재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분재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천만송이국화축제 백미 ‘국화분재’

익산시, 대상 김성남 씨 등 4개 분야 13명 수상... 29일까지 전시

20년 노하우로 국화 작품재배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분재’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시는 익산국화분재 연구회원들이 직접 재배해 ‘2023 국화분재 경진대회’에 출품한 목석부자, 분경작, 연근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재작품 200여점을 29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전시한다.

또한 국화분재 회원들이 전시 기간 중 전시장 운영과 해설사로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국화분재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지난 19일 국화분재 경진대회 출품작이며, 국화분재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13명의 수상자 로 선정됐다.

최고상인 영예의 대상에는 전문가반 김성남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백은정씨가 우수상은 정희수 조규태.

한정숙 주숙경 송선희 최향락 김정희 김익환 장려상엔 최성대 송운석, 최명옥씨가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석부5간작과 분경작 등 5점으로 줄기가 굵고 분재 수형과 뿌리생육, 개화 등이 뛰어나 출품작 중 최고점을 받았다.

박용우 익산국화분재연구회 회장은 “100여 명의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땀흘려 노력한 결과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며 “20주년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장에서 다양한 국화분재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화꽃으로 꾸며진 다양한 분재 작품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올해로 20주년인 익산국화축제를 꼭 오셔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는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치매가족교실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치매가족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치매어르신 등을 돌보는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힐링프로그램(원예활동)을 통해 우울감 해소 등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또한, 치매가족교실(하이툰)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내년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연령, 진단, 치료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 대해 확대지원 검토할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치매가족 프로그램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참여 문의는 ☎063-454-5880~588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2023년 지역통계 우수지자체 선정

익산시가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2023년 지역통계 우수 지자체 심사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상은 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광주에서 개최하는 ‘호남권 지역통계 발전토론회’에서 진행되며, 익산시를 포함한 총 7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얻는다.

이번 심사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지역통계의 활성화 및 중요성 강화를 위해 호남권 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며 정책활동 사례 및 통계역량 강화 노력 등 5개 지표로 평가했다.

시는 지난 9월 2023년 지역통계 정책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호남권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지자체 심사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 호남권 지역통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

군산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감사관 14명과 일반감사관 1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24명을 신규 위촉했으며 시민감사관은 향후 2년간 종합감사 및 분야별 현장감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감사 기능 강화 및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지역사회에 신뢰가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으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시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또 시민감사관은 세무·법률·건축·토목·전기·복지 등 10개 분야로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장점, 일상감사, 현장점검, 자문, 행정분야 등 시에서 추진하는 감사활동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청정지역 사수’ 익산시, 럽피스킨병 방어 재대본 가동

방역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 정현을 시장, 본부장 맡아 지휘

익산시가 전국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소 럽피스킨병의 지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소 럽피스킨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8일 방역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허전 부시장이 각각 본부장과 차장을 맡아 선봉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진두 지휘한다.

재대본은 축산과와 시민안전과 등 6개 관련 부서로 구성됐으며, 경찰·소방·군부대 등 협업 기관이 동참한다. 각 부서별로 물자, 시설, 의료, 방역 등을 맡아 관리하면서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상황을 공유하게 된다. 익산은 현재까지 지역 884개 소 사육



농가(4만 3000여 두) 중 의심 건은 없으나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럽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고열과 함께 피부 점막에 울퉁불퉁한 혹을 유발한다. 그동안 해외에서만 주로 유행해

왔으나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국내 첫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 등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시작됐지만, 모기 등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 역시 전날 부안군에서 도내 첫 럽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시작했다.

시는 앞서 국내 첫 사례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로 소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게 지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낭산농협~시명마을간 도로망 개선... 교통편의 증진

익산시가 낭산농협~시명마을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했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낭산농협~시명마을 구간 200m의 급커브 구간의 도로를 직선화하는 선형 개량공사로 이달 준공됐다.

급커브 구간의 직선화로 이동거리 단축과 겨울철이나 빙길에 미끄럼 발생위험이 줄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



전이 확보됐다.

시명마을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됐다”라며 크게 반겼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동안 불편을 감수해주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도로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